

解放後 韓國의 工業發展

林 鍾 哲*

.....〈目 次〉.....	
I. 體 制	IV. 工業構造의 變化
II. 資源의 調達	V. 結 論
III. 工業化戰略	

I. 體 制

해방후 한국의 工業發展은 두개의 단계에 걸쳐 相異한 內容을 갖고 이루어 졌다. 즉 1945~60년 간에 있어 韓國工業은 自由企業主義的 經濟體制의 테두리 안에서 輕工業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갔으며 1961년 이후에 있어서는 計劃的 開發이란 混合體制的인 테두리 안에서 重化學工業중심의 發展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엄격히 본다면 前半期 17년간의 經濟움직임과 後半期 13년간의 그것사이에는 날카롭고 分명한 相異를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自由市場原理에 입각하여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였던 李承晩政權下에 있어서도 갖가지 規制措置가 있었고 經濟움직임의 本質에 대한 政權의 介入이 있었다. 즉 政府樹立직후 美經濟協助處(ECA)와의 협의아래 실시된 「한국경제의 強化 및 安定을 위한 8個原則」에서는 1. 政府財政에 있어서의 歲出入의 均衡-유지, 2. 通貨發行의 統制, 3. 外國貿易의 國內營業保障과 같은 資本主義體制의 정부라도 당연히 해야 할 經濟活動이외에도 4. 輸出產業의 發展促進, 5. 通貨換率의 策定 및 6. 政府所有 生産施設 및 재산의 效率的 運營 7. 對外貿易의 國家統制등 新重商主義的 規制도 강조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8. 國內生産糧穀의 收集 및 配給制度의 계속이란 統制經濟的 規制까지도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던 것이다.⁽¹⁾ 그후 「經濟安定 15原則」으로 수정된 綜合經濟施策을 보더라도 物價統制政策의 수립, 糧穀收集의 계속, 貿易管理政策의 확립등 規制의인 요소가 들어있다.⁽²⁾

그뿐만더러 1949년에는 農地改革이라는 劃期的인 社會主義的 改革을 단행한 일도 있기는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社會科學大學 貿易學科 副教授

(1) 黃炳峻著, 『韓國의 工業經濟』, 1966, p.69

(2) 同書, p 69

하였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工業資産의 94% 이상이나 되는 日本人소유의 工場이 歸屬資産으로 政府手中에 들어왔고 또 1945~60년 간을 통하여 2,935,746천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원조가 정부를 통하여 受入되었음에도 불구하고⁽³⁾ 적어도 1958년에 이르기까지는 이러한 興件과 物質的 基盤을 정부가 意圖적으로 援用함으로써 經濟運行에 計劃的 要素를 導入하려는 試圖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해방과 더불어 이땅에 移植된 民主主義의 순탄한 發展을 위해서는 그物質的 基盤으로서 美國式自由企業의 原理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⁴⁾ 그렇기 때문에 國聯의 指示에 의하여 戰前水準으로 消費生活을 높이고 自給의이며 自主的 成長이 가능한 經濟로 한국경제를 改編하기 위하여 UNKRA의 요청에 따라 Nathan 調查團이 작성한 計劃案도 李承晩政府가 가지고 있던 反計劃的 偏見(anti-planning biases)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同意와 支持, 그리고 국민의 理解를 얻지 못한채 빛을 못보고 말았다.⁽⁵⁾ 물론 Nathan 計劃이 신전에 옮겨지지 못했던 것은 李承晩을 둘러싼은 政治的 支持層 및 日帝下에 總督府官吏로서 활약한 官僚층의 保守的 性格에도 기인하는 바 크지만⁽⁶⁾ 한편 돌이켜 생각하면 經濟計劃을 이끌어 나갈 擔持層에 經濟諸量에 대한 計量的 分析能力이 없었으며 計劃化를 도울 基礎的 統計資料조차 不備하였다는 欠陥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計劃化는 다분히 패시스트的 統制經濟를 示現할 위험성도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國聯의 강력한 권고를 바탕으로 授援國의 諒解下에 연평균 8.6%라는 成長率을 실현시키기 위한 再建과 援助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부문에 걸쳐 全面的인 計劃的 開發을 실천할 기회는 이같은 정부의 非協調속에 상실되었다.⁽⁷⁾ 그대신 그 10년후 7.1%란 目標成長率도 이를 너무 높다고 하며 美國 및 世界銀行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6%臺로의 引下調整이 강력히 권고되는 불리한 상황속에서 한국경제는 計劃化로의 길을 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⁸⁾

한국경제가 뒤늦게 計劃化의 길을 걷게된데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3) 이것은 1960년의 한국의 GNP 1996 백만달러의 15배에 해당한다.

(4) 가장 進步的이었다고 볼 수 있는 卞奉岩農林長官에 의해 糶配給制廢止主張은 그러한 분위기를 말하여주는 것이라고 보겠다.

(5) Irma Adelman, *Practical Approaches of Development Planning*, 1969, pp.15~16.

(6) G.T. Brown, *Korean Pricing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1973, p.40.

(7) I. Adelman은 그의 著書에서 Nathan 計劃이 한국정부에 의해 受諾되지 못한 것은 주로 政治的 理由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지만 (cf. I. Adelman, *op. cit.*, p.11) 그보다는 獨裁者 李承晩과 당시의 政治勢力들이 갖고 있던 保守的이며 自由企業主義的인 이데올로기, 日帝下의 酷甚한 經濟的 規制에서 서달렸던 국민대중의 反規制的 態度 그리고 資本家들에 의한 無制限한 經濟權力行使에 대한 요구의 三者가 合一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I. Adelman, *op. cit.*, pp.22-25.

1949년에 農地改革을 성취시켰던 바와 같은 바이마르社會主義의인 이데올로기가 적지 않은 指導層人士속에 살아남아 있었다. 둘째, 한국이외의 세계에 있어서도 獨立이후 10여년에 걸친 經濟發展과 國民의 威信昂揚을 위한 努力이 거의 모든 新興國에서 좌절되는 사태가 있었고 이것이 드디어는 1962년7월 카이로에서 열린 「發展途上諸國의 經濟開發會議」에서 宣言되듯 國家的 開發計劃의 필요성과 產業의 多角化 및 工業化에 대한 熱望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內外相應하여 計劃化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다. 셋째로 낮은 成長率, 經濟的 停滯, 對外依存度의 증대, 國內資源의 非效率的 利用등을 모두 李承晩政權이 추구하였던 自由企業體制의 內在的 缺陷탓으로 돌리고 동시에 外援減少를 저지할 수 있는 政策變化의 가능한 방향마저도 計劃化와 관련시키려는 現實의 欲求와 不滿이 있었다. (9)

그리하여 1958년 李承晩政權은 前半期 3個年, 後半期4개년 도합 7개년에 걸리는 經濟開發計劃의 樹立에 착수하여 1959년 이를 완성, 1960년부터 실시하기로 1960년1월의 閣議에서 議決하였지만 4.19革命으로 인한 李承晩獨裁의 붕괴로 이案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10)

計劃化를 위한 努力은 民主黨政權下에서는 가일층 강력하게 이루어져 1961년5월에는 새로운 5개년계획안이 완성되었지만 그 역시 5.16革命 이후의 軍事政權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그대로는 빛을 못보았다. 그러나 이案이 1962~66년에 걸쳐 실시된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基盤이 된 것은 周知된 사실이다. (11) 다만 4.19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충만하였던 貧困을 제거하고 福祉社會를 건설한다는 平等主義的인 이데올로기 (12)는 計劃의 具體的 實踐이란 단계에 있어 생긴 物神崇拜의인 錯誤로 인하여 褪色되고 先建設後分配라는 成長至上主義(growthmania)가 등장하여 計劃化의 本質的 內容에 커다란 차이를 일으켰던 것이다.

執權과 동시에 「絶望과 飢餓線上에 시달리는 民生苦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공약하고 그를 위해 지체없이 經濟開發計劃을 세웠고 經濟開發에 대한 확고한 理念과 意志를 갖고 실천에 옮겼다」(13)고는 하지만 共和黨政府가 처음 試圖한 것은 經濟的 安定이었으며 이 政策目標을 위하여 1963~64년에는 第1次5個年計劃內容에 엄청난 修正을 가하여 目標成

(9) *Ibid.*, p.16

(10) *Ibid.*, p.12

(11) *Ibid.*, p.12

(12) G.T. Brown, *op. cit.*, p.44

(13) 『韓國經濟의 어제와 오늘』, p.16

長率을 1954~61년의 實績인 연평균 4.4%를 약간 上廻하는 연평균 5.0%로 인하하였으며 그나마도 이修正案에조차 충실하지 않았다고 Irma Adelman은 評價하고 있다.⁽¹⁴⁾

共和黨政府가 經濟開發에 대하여 관심을 증대시키게 된 것은 祖國近代化란 理念의 實踐手段으로서보다는 學生들과 知識人사이에 그政治的 基盤을 鞏固하는데 있어 강력한 經濟開發計劃案이 必須的인 것으로 判斷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¹⁵⁾

動機와 過程에 대한 評價는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1962~1975년사이의 한국경제는 되도록 民間人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自由企業의 原則을 토대로 하되 基幹部門과 그 밖의 重要부분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정책을 쓰는 「指導받은 資本主義體制」란 이름이래 정부이니셔티브에 의한 計劃的 開發이란 새로운 發展의 길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II. 資源의 調達

經濟開發을 획구하고 있는 나라들, 특히 그필요성이 절실한 發展途上國에서는 經濟體制 또는 經濟政策의 合理性의 基準은 可用資源을 얼마만큼 效率的으로 極大動員하여 생산적으로 投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1963년 이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資源중 하나인 勞動力에 대한 統計가 만족스러운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論議를 資本에만 局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資本利用에 관한 資料도 1953년 이후의 것만이 있으므로 부득이 1945~61년간의 工業化類型은 1953~61년의 9개년計數에 의하여 그리고 그이후의 그것은 1962~73년간의 12개년計數에 의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表1〉에서 보듯 1953~61년간의 總投資額은 1970년 不變市場價格으로 7,808.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年度別 규모는 1953년의 937.8억원에서 1961년의 1,105.1억원으로 17.8%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단순산술평균으로의 증가율은 年 2.2%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해마다의 투자규모는 1953년을 피크로 1956년까지는 해마다 20%가 넘는 축소를 보여오다가 1957년에는 1,036.3억원으로 크게 늘고 그후 다시 감소를 거듭하다가 1960년 이후 즉 李承晩政權이 붕괴한 다음 처음으로 꾸준한 增加趨勢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처럼 해마다의 投資規模가 안정된 크기를 갖지 못하고 변동이 심하였다는 것은 投資活動

(14) I. Adelman, *op. cit.*, pp. 4-5

(15) *Ibid.*, p 4

<表 1> 總投資規模의 推移(1970年不變價格 單位, 10억원)

	金 額	增減率 %		金 額	增減率 %
1953	93.78	—	1962	118.41	7.1
54	74.10	-21.0	63	194.95	64.6
55	72.30	-2.4	64	164.11	-15.8
56	57.41	-20.6	65	178.07	8.5
57	103.63	80.5	66	300.91	69.0
58	97.91	-5.5	67	353.87	17.6
59	84.71	-13.5	68	498.68	40.9
60	86.45	2.1	69	677.62	35.9
61	110.51	27.8	70	704.66	4.0
			71	741.57	5.2
			72	650.63	-12.3
			73	976.05	50.0
총 액	780.80	5.9	총 액	5,559.53	22.9

자료: 韓銀, 「韓國의 국민소득」

그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國民經濟의 類型과 움직임을 所望되는 方向으로 誘導하려는 意圖의 要素가 없었다는 증거이다.

이에 반하여 1962~73년간에 있어서는 1964년과 1972년이란 특수한 사정이 있던 두해를 제외하고서는 투자규모는 계속 팽창하여가고 있다. 다만 1964년은 인플레이가 연중평균으로 34.6%나 진행되고 計劃化의 차질로 5개년계획 그 자체가 수정되던 해였고 1972년은 1970년부터 시작된 不況이 底點을 이루던 해였던 까닭에 투자규모는 각기 比前年 15.8% 및 12.3%의 감소된 示現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투자규모의 연평균증가율이 22.9%라고는 하지만 해마다의 變動率을 보면 최저 1970년의 4.0%증에서 최고 1966년의 69.0%로 그變動幅이 매우 큰데 이것은 投資規模가 計劃的으로 적절히 管理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1962~73년간을 통하여 計劃原案에서 목표한 成長率은 7%였으므로 資本/產出高比의 다소의 變動을 감안하더라도 해마다의 投資規模가 이처럼 큰 離散을 보인다는 것은 計劃으로부터의 逸脫, 즉 經濟計劃의 無計劃性을 말하여 주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연평균 투자규모는 1953~61년간 이 86.8억원이었음에 반하여 1962~73년간은 463.3억원으로서 前段階에 비하여 5.3배나 증가하고 있다. 투자규모가 이처럼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물론 그 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貯蓄能力의 提高를 들 수 있다. 즉 1962~73년간의 GNP총계는 255,432.1억원, 연평균 21,286.0억원으로서 1953~61년간의 GNP총액 91,182.7억원, 연평균 10,131.4억원에 비하면 2.1배나 커졌다. 그런데 貯蓄能力은 평균 2.1배 커졌는데 投資規模가 5.3배 이상 커졌다는 것은 所得增加에 따르는 限界貯蓄

性向의 上昇이외에도 計劃化와 관련된 投資資金動員에 대한 執着이 있었던 것이다. 즉 1962~73년간에 있어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財源調達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더욱이 國內貯蓄의 증대는 우리 經濟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原動力이라고 할수있다.(이를 위하여) 정부는 1962년이후 한편으로는 外資導入을 촉진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한편으로는 國內資本을 效率的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政策을 추진하였던 것이다」⁽¹⁶⁾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첫째 通貨改革을 통한 強制的貯蓄, 金利引上을 통한 自發的貯蓄등 갖가지 金融政策手段을 援用하였고, 둘째 貯蓄이 投資로 連結되는 채널을 整備하기 위하여 銀行店舖의 정비, 확장, 갖가지 特殊金融機關의 설립, 保險會社의 整備, 強化, 資本市場의 육성, 短期金融市場과 庶民金融의 개발등을 서둘렀고, 세째로 50年代末부터 급격히 줄어든 外國援助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써 外資導入 즉 有償의 借款 및 直接投資誘致에 全力을 다하였다. 이것은 資本動員을 위한 國內的 措處는 하나도 강구하지 않은 채 오직 그유일한 源泉이었던 外國援助의 획득에만 注力했던 50年代의 政策的 無爲와는 날카롭게 對照되는 것이다.

이러한 政策努力의 差는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投資資金源泉의 相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53~61년간에 있어서는 國民貯蓄은 총투자자원의 32.7%를 차지하고 있을 뿐으로 투자의 대부분은 海外貯蓄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그나마 32.7%에 불과한

<表 2> 總投資의 資本源泉 (%)

	1953~61	1962~73
總投資	100.0	100.0
國民貯蓄	32.7	53.1
純貯蓄	- 7.7	23.6
政 府	-26.0	11.0
民 間	18.3	12.6
家 計	13.1	2.0
法 人	5.1	10.6
資本消耗充當金	40.5	29.6
政 府	4.9	2.7
民 間	35.6	26.9
海外貯蓄	65.8	42.7
純借入	- 0.3	18.0
純移轉	66.1	24.7
統計上不一致	1.2	4.2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 1973

(16)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p.26

國民貯蓄도 純貯蓄은 오히려 7.7%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資本消耗充當金이 40.5%를 점하고 있다. 물론 純貯蓄이 7.7%의 마이너스를 示現하게 된 것은 정부저축이 -26.0%를 차지한 때문이지만 1953~61년 평균 GNP의 12.4%에 불과했던 國內總投資의 불과 18.3%밖에 民間純貯蓄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法人純貯蓄은 5.1%에 불과했다는 것은 당시의 낮은 1人當所得水準을 감안하더라도 貯蓄이 효율적으로 동원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GNP에 대한 家計純貯蓄의 비율이 1.7%에 불과하고 法人純貯蓄이 0.6%라는 것은 거의 貯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것이다.⁽¹⁷⁾

한편 총투자의 65.8%를 담당한 海外貯蓄은 거의가 純移轉 즉 미국을 중심한 友邦國家로 부터의 無償援助이었다. 1953~61년간의 원조총액은 2,282,514천달러. 연평균으로는 253,613천달러에 달하며 GNP에 대한 비율은 14.85%나 된다. 1인당 원조규모는 1953~61년 평균으로는 11.15달러로서 마샬援助기간중의 對유럽 1人當원조액 12달러보다는 작지만 그것이 집중적으로 投入된 1955~58년간의 평균은 14.13달러로서 1人當 금액에 있어서나 기간의 길이에 있어서나 對歐마샬援助의 규모를 上廻한다. 그런데 經常달러 표시로 하였을 때 1953~61년간의 국내총투자규모는 1,904,890 천달러에 불과하였던 터이므로 그기간중의 원조총액 2,282,514천달러는 국내총투자액의 119.8%에 달하게 된다. 이것은 50년대에 있어 無償으로 공여된 援助로 그런 부가 생산적으로 투자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 海外貯蓄이 국내총투자에 차지한 비율은 66.1% 이므로 投資

〈表 3〉 外 國 援 助

	金 額 천달러	1人當크기 달러	GNP에 대한 비율 %	총투자에 대한 비율 %
1953	194,170	9.59	14.27	89.2
1954	153,925	7.39	10.49	90.5
1955	236,707	11.05	16.74	140.7
1956	326,705	14.82	22.39	235.7
1957	382,893	16.88	22.90	149.7
1958	321,272	13.77	16.94	130.3
1959	222,204	9.26	11.22	104.9
1960	245,393	9.94	12.29	112.8
1961	199,245	7.81	9.38	71.6
총계 (또 는 평균)	2,282,514	11.15	14.85	119.8

註) 1人當 원조규모는 年央人口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7) 1955~65년간에 있어 可處分所得에 대한 家計貯蓄의 비율은 일본이 16.5%였음에 반하여 韓國은 0.8%였으며 自由中國은 8.3%였다. Cf. T. Blumenthal, 『日本經濟의 成長要因』, 1972, p.20

에 대하여 119.8%란 비율을 갖는 外國援助는 나머지 53.7%포인트 즉 전체원조의 44.8%가 非生産的으로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無償의 원조가 1,284,183천달러, 연평균액으로는 107,015천달러로 1953~61년수준에 비하여 42.2%로 떨어진 1962~73년간에 있어서는 海外貯蓄은 투자자원의 42.7%를 차지하는데 불과하게 되었다. 그나마도 純移轉의 크기는 前段階의 66.1%에서 24.7%로 41.4%포인트나 줄어들고 純借入이 18.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1953~61년간과 1962~73년간에 있어 투자자원의 구성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다. 즉 1953~61년간에 있어서는 국민저축의 비중이 1953년의 59.0%에서 1961년의 29.9%로 줄어들고 특히 純貯蓄이 29.2%에서 -6.9%로 줄어들고 海外貯蓄의 비중이 41.0%에서 65.2%로 커지는 不健全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반하여 1962~73년간에 있어서는 12.0%에 불과했던 국민저축은 1973년에는 84.3%로 키졌고 특히 純貯蓄의 비율은 52.7%로 커지고 있다. 더구나 家計純貯蓄의 크기는 1962년의 -32.8%에서 1973년의 36.9%로 커져 GNP에 대한 家計純貯蓄의 비율은 5.2%에 달하고 있다. 한편 海外貯蓄은 83.5%에서 15.4%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그중 純借入이 차지하는 크기가 9.5%로서 純移轉의 크기 5.9%를 壓倒하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1962~73년간에 있었던 政策變化의 당연한 결과이다. 즉 利率, 貯蓄機構 등에서 다소의 誘因과 便宜를 주면서 강행된 貯蓄드라이브는 높아진 實質所得水準과 관련하여 民間純貯蓄을 증대시켰고 한편 租稅 및 기타 政府活動을 통한 政府貯蓄의 증대로 인하여 純貯蓄의 비중은 23.6%로 키졌다. 한편 원조의 감소를 카바하기 위한 外資導入의 積極化政策은 1968년이후 純借入의 비중을 純移轉의 비중보다 크게 하기에 이르렀다.

III. 工業化戰略

1953~61년간의 工業化의 特徵으로서 첫째 그것이 自由企業原理의 확립을 추구하는 政策努力과 관련되어 이루어졌고 둘째 당시 불가피하였던 軍備經濟體制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세째 따라서 消費財產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최소한도의 生産財產業이 基幹產業으로서 政策的 育成的의 對象이 되었으며 끝으로 內資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外撥資金を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였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¹⁸⁾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表

(18) 朴喜範, 『韓國經濟成長論』, 1968, 第2章, 黃炳峻, 『韓國의 工業經濟』, 1966, 第1編 第3章 第2節, 洪性圀, 『韓國經濟의 資本蓄積過程』, 1965. 第1篇 第1章 및 第2章.

4) 및 <表 5>에서 보듯 年平均成長率로 보나 産業生産指數로 보나 重化學工業의 成長이 1962년이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1953~61년간에 있어서도 輕工業의 成長을 앞지르고 있다. 즉 1953~61년간에 있어 輕工業의 성장율은 연평균 11.0%로서 製造業成長率 12.1%를 下廻하고 있으며 重化學工業의 成長率이 연평균 18.4%로서 제조업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個別産業을 보더라도 輕工業의 경우는 飲料品, 靴類, 衣類 및 裝身具, 紙類 및 紙類製品製造業 등 간신히 3個産業에서 20%를 넘는 연평균성장율을 보이고 있음에 반하여 重化學工業에 있어서는 石油 및 石炭製品, 土石 및 유리製品, 第1次金屬製品, 電氣機器製造業 등 4個産業에서 20%를 넘는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1953년을 기준할 때 輕工業의 生産指數는 224.7인데 비하여 重化學工業의 그것은 384.4로 거의 160포인트나 앞서고 있다. 産業別로 보더라도 輕工業의 경우는 製紙工業이 4.4배 靴類, 衣類, 裝身具

<表 4> 産業別成長率 (%)

	1953~61	1962~72
輕工業	11.0	14.7
重化學工業	18.4	23.9
製造業	12.1	17.9
食料品 製造業	10.1	13.7
飲料品 "	41.5	10.7
煙草 "	4.7	19.9
纖維 "	11.7	15.3
靴類, 衣類 및 裝身具 "	21.7	21.7
製材 및 木材 "	10.7	21.9
家具 및 裝置品 "	5.4	9.3
紙類 및 紙類製品 "	21.7	19.5
印刷, 出版 및 同類似品 "	10.4	11.2
皮革 및 革製品 "	10.2	18.6
고무製品 "	17.7	14.1
化學 및 化學製品 "	15.7	27.9
(肥料 ")	—	41.5
石油 및 石炭製品 "	21.8	40.9
(石油 ")	—	39.9
土石 및 유리製品 "	20.1	21.2
第1次金屬製品 "	31.6	21.9
金屬製品 "	14.9	10.7
機 械 "	17.3	8.1
電氣機器	31.1	32.5
輸送用機器	19.0	21.4
(鐵道工作廠)	25.8	31.1
其他製造業	17.3	28.7
(合成樹脂 ")	39.5	39.1

工業이 3.3배, 증가한데 반하여 重化學工業에 있어서는 第1次金屬工業이 8.2배, 石油 및 石炭製品 工業이 5.1배, 電氣機器工業이 4.9배 土石 및 유리工業이 4.1배, 輸送用機器工業이 3.7배, 기계공업이 3.3배, 化學工業이 3.2배씩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指標에 準 의 準한다면 1950年代에 있어서는 工業化의 方向은 1960年代이후에 勿지않게 重化學工業中心의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表 5〉 産業別生産指數

	1961(1953=100)	1972(1962=100)
輕工業	224.7	463.3
重化學工業	384.4	756.7
製造業	246.0	535.9
食料品製造業	212.6	397.7
飲料品 "	262.3	351.7
煙草 "	143.1	637.0
纖維 "	228.3	479.8
靴類, 衣類 및 裝身具 "	332.7	588.8
製材 및 木材 "	177.7	566.3
家具 및 裝置品 "	136.3	200.5
紙類 및 紙類製品 "	442.7	499.5
印刷, 出版 및 類似業 "	204.6	242.6
皮革 및 革製品 "	199.7	469.9
고무製品 "	309.1	373.3
化學 및 化學製品	319.2	874.6
(肥料 ")	—	(1,780.4)
石油 및 石炭製品 "	514.7	2,816.3
(石油 ")	—	(15,847.9)
土石 및 유리製品 "	414.1	606.7
第1次金屬 "	818.6	562.4
金屬製品 "	299.1	249.9
機 械 "	332.0	144.3
電氣機器 "	492.3	1,235.6
輸送用機器 "	374.3	591.0
(鐵道工作廠)	(525.9)	(612.4)
기타 "	332.9	1,233.1
(合成樹脂 ")	(844.4)	(2,310.4)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 1973.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61년 간의 工業化類型을 輕工業中心의 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1953년에 있어 86.7%대 13.3%이었던 輕工業 대 重化學工業의 비중은 1961년에 있어서는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9.2% 대 20.8%로서 輕工業의 비중의 압도적으로 컸다. 이러한 消費財產業의 壓倒的인 比重으로

인해 그限界的인 관계에 있어서의 相對的 停滯에도 불구하고 이시기의 工業活動을 輕工業中心的이었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1953~58년에 투자된 外資投資總額 197,205천달러중 化學工業에 대한 투자가 96,427천달러로서 전체의 48.9%를 차지하여 纖維工業에 대한 投資 39,743천 달러를 크게 상회하였고 같은 기간중 化學工業 및 機械工業에 대한 外資投資가 121,148천달러로서 외자투자총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보듯 重化學工業에 대해서는 상당한 力點이 두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化學工業에 있어서도 羅州肥料, 忠州肥料등의 몇개 大規模工場을 제외하고는 그대부분이 紙類, 油脂, 고무, 皮革등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中小規模工場의 신규건설과 기존공장의 改補修, 내지 擴充事業에 투자함으로써 섬유공업에 대한 거액의 투자와 아울러 당시의 外援投資方向을 生活必需品를 비롯한 消費財生産部門에 置重되었다」⁽¹⁹⁾는 判斷을 불가피하게 誘導하였다. 사실 羅州肥料나 忠州肥料도 그것이 近代的인 大規模工場이란 點에서는 化學工業의 中核같이 생각되겠지만 결국 그것은 農業生産을 위한 投入財生産業으로서 그 國民經濟的 意義는 農業의 第一次的인 前方聯關産業인 精米業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重化學工業으로 同一視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세째로 輕工業의 경우는 製粉 製糖, 綿紡, 梳毛紡, 製材, 製紙등 거의 모든 製造業에서 여러개의 近代的인 施設이 건설되었고 1958년이후에는 施設의 過剩까지도 出現시킨데 반하여 重化學工業部門에서는 舊態依然한 生産活動이 軍需財廢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을뿐 近代的 生産施設이란 시멘트, 板유리, 銑鐵등 제한된 부문에서 10指에도 不足한 것이 그나마 1958년이후 건설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重化學工業의 質的內容이란 보잘것 없는 것이었고 輕工業은 눈부신 것이 있었으므로 1953-61년의 工業發展은 消費財産業中心的 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끝으로 機械工業 특히 一般工作機械工業의 缺如가 重化學工業一般의 量的 擴張에도 불구하고 1953~61년의 工業發展을 소비재중심적이라고 특징지었을 것이다. 기계공업은 화학공업 및 금속제품 공업에 이어 연평균 17.3%란 낮은 성장율을 示現하였으며 그것이 製造業중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의 2.5%에서 1961년의 3.4%로 提高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第1次生産財産業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重化學工業은 여전히 海外依存的인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1953년이후의 工業發展을 主導한 산업으로는 섬유산업과 製糖工業을 중심한 食料品産業을 들어야 한다. 즉 섬유산업중 綿紡織工業은 이미 1957년에 국내시장을 飽和시켜 그해의 絹布生産量 126,918천m 중 1.4%에 해당하는 1,787천m를 수출하기에 이르렀으며

(19) 黃炳燮著, 前掲書, pp.79-80

1960년에 있어 綿布의 輸出率은 9.1%에 달하였다. 製糖工業의 경우도 1958년부터 輸入을 완전히 代替하였지만 輸出産業으로의 전환은 다소 늦어 1963년에 처음으로 輸出이 시작되었다. 製粉工業은 救恤과 軍需兩面의 目的에 의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食糧波動으로 인한 需要激增 및 빈번한 換率變動에서 오는 外撥資金施設融資의 恩賜보조효과등을 바탕으로 하여 施設能力이 크게 확장되어 1956년에는 解放전의 南北韓總施設能力 5천bbl을 크게 능가하는 12천bbl로 늘어났고 1957년에는 다시 24.6천bbl로 倍增되어 過剩投資의 문제가 야기되었지만 시설확장은 그후에도 계속되어 1959년에는 42.7천bbl로 확대, 그稼動率은 23%대로 하락하게 되었다.⁽²⁰⁾ 그러면서도 1961년에 있어서도 18천%의 小麥粉이 外國에서 輸入되는 奇現象이 있었다. 合板工業의 경우는 1957년부터는 軍納이란 間接輸出이 그리고 1959년부터는 直接輸出이 시작되어 1961년에는 그輸出率은 33.1%에 달하였다. 이처럼 1950年代에 건설되고 力點이 두어진 輕工業중 輸入代替産業에서 輸出産業으로 원활하게 전환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끌어나간 것은 겨우 綿紡織工業뿐이며 그것만큼은 비중이 크지 않으나 麥酒(1958), 合板등이 그뒤를 따랐으며 板유리(1962), 革製品(1963) 雪新(1963), 시멘트(1994)등은 1962년이후에 이르러서야 輸出産業으로서 競爭의 生存에 견디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1962~73년간의 工業化戰略은 처음부터 重化學工業化에 있었다. 그것은 第1次計劃의 시작과 동시에 綜合製鐵工場을 중심한 重工業建設에 보인 政策當局의 熱意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60年代의 開發政策當局이 重化學工業化에 熱意를 보인 것은 당시 流行했던 Hirschman流의 不均衡成長論과 日帝時 戰爭經濟體制下에서의 體驗에서 인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Detroit와 八幡의 鋼鐵의 規模에서 비교되는 經濟力이 國家的 威信 및 經濟發展의 指標로서 당시의 政策決定當局의 思考에 化石化된 채 남아 있었고 中間財工業의 自省으로서 前後方聯關효과가 큰 鐵鋼工業에 대한 戰略的 意義를 강조한 Hirschman理論은 成長至上論者이던 당시의 計劃樹立者를 魅了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投資財源의 不足, 企業家의 無反應, 外國의 反對, 國民大衆의 經濟的 要求등 諸阻害要因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1962-66년간에는 에너지源의 開發, 基幹産業과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輸出增大와 輸入代替産業의 육성, 農業生産力의 증대등 分散된 努力을 하지않을 수 없었고 1967~71년간에 가서 처음으로 철강, 기계등 工業構造의 高度化가 前景에 나서게 되었으며 1972년이후 重化學工業의 육성, 특히 기계공업의 自給化가 강조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는 重化學工業偏重의 不均衡成長論의 政

(20) 産業銀行調査部, 『韓國의 産業』, 1966年版(上), p 133

策意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세에 있어 마련되고 추진된 것은 Wolf가 적절히 표현했듯 電力, 農業, 기타 社會間接資本이란 세部門에 力點을 둔 不均衡成長戰略이란 畸型兒이었다.⁽²¹⁾

이러한 政策意圖와 政策口號 그리고 開發戰略의 實際가 각기 다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기에 1962~73년간에 있어서의 工業化도 1953~61년간에 있어서의 그것과 大同小異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선 年平均成長率의 隔差라는 점에서 볼 때 1953~61년간에 있어 重化學工業의 年平均 성장율은 18.4%로 輕工業의 11.0%보다 1.67배 빠른 템포를 보였던 것인데 1962~73년에 있어서는 14.7%(輕工業)에 대한 23.9%로 그 隔差는 1.62배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成長率隔差는 生産의 絶對額變化에 그대도 나타나 있다. 1953년을 기준할 때 1961년 현재 重化學工業은 輕工業에 비하여 1.71배의 生産의 相對的 增加를 실현한데 비하여 1962년을 기준할 때 1972년 현재 重化學工業의 相對的 生産增加는 1.63배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事例를 보더라도 가장 일찍 政策的 育成的 대상이 되었던 輸送用機器工業의 年平均成長率은 21.4%로서 重化學工業의 평균 성장율 23.9%를 下廻하고 있으며 第1次金屬製品製造業의 그것은 21.9%로서 1953~61년간의 31.6%를 오히려 하회하고 있다. 輕工業에 있어서는 飲料品製造業 및 紙類 및 紙類製品製造業만이 1953~61년간의 年平均 성장율을 下廻하고 있음에 반하여 重化學工業에 있어서는 第1次金屬製品製造業, 金屬製品製造業, 機械製造業등 가장 기본적인 重工業部門에서 낮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合成樹脂工業의 성장율도 낮아지고 있다. 결국 1962~71년간에 있어 重化學工業의 발전을 主導하여온 것은 肥料工業, 石油精製工業, 電氣機器工業 및 合成樹脂工業의 빛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 네工業이 重化學工業중 차지하는 비율은 1962년의 11.9%에서 1972년의 43.9%로 미약적으로 커지고 있다.

발전도상국에 있어, 특히 한국과 같이 資源이 不足하고 國內市場이 협소한 국가에 있어서는 工業化戰略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輸入代替의 과정을 빨리 종료시킨 후 輸出產業으로 이를 전환시키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綿紡織工業을 비롯한 1950年代에 力點이 주어진 몇가지 輕工業이 1960年代初까지는 강력한 國際競爭力을 가진 輸出產業으로 전환하였음을 이미 보았다. 그런데 1962~1973년간에 있어 이러한 輸入代替→輸出로의 成長過程을 보면 60년대 重化學工業發展을 主導한 산업중 하나인 石油精製業은 原料輸入에 의한 製品輸入의 代替를 60年代에 완료했으며 化學肥料의 경우 1973년에 있어서도

(21) Charles Wolf, Jr., "Economic Planning in Korea", I. Adelman, 前掲書, p.26에서 再引用.

15,566천달러의 輸出이 불가피하기는 하였지만 總輸入에 대한 그비율은 0.36%로서 총수입의 14.77%를 차지했던 1962년에 비하면 거의 輸入代替를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1972년에 있어 化學肥料수출액은 11,560천달러로서 그 輸出入比率은 103.7이 되고 있으며 輸入依存度는 14.0%로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鐵鋼工業은 鐵鋼材의 경우 그生産量을 1962년의 633,389%에서 1971년의 1,358,938%으로 2.1배이상 증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國內需要의 激增으로 말미암아 그 輸入依存度는 오히려 1962년의 18.2%에서 1971년의 18.3%로 증가되었으며⁽²²⁾ 金屬工作機械의 경우도 自給率은 1963년의 39.7%에서 1970년의 32.4%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²³⁾ 産業機械의 경우도 1971년현재 국내생산은 13,084천달러, 輸入은 190,188천달러, 輸出은 2,159천달러로서 輸入依存度는 94.6%, 輸出率은 16.5%에 불과하다.⁽²⁴⁾

끝으로 가장 큰 政策力點이 주어졌던 産業中 하나인 自動車工業은 그輸入이 실질적으로 금지됨으로써 名目的인 自給을 실현하였지만 1966년에 3,294천달러던 部品輸入은 1969년에는 42,579천달러로 늘어 1962년의 自動車 및 그部品輸入類 1744천달러를 24.4배이상 상회하였으며 그후 遞減하여 1971년에는 24,609천달러로까지 감소되었다가 1972년에는 26,690천달러로 증가되었다. 한편 自動車部品の 수출신적은 1966년의 649천달러에서 1972년의 2,152천달러로 3.3배가량 증가되었으나 같은 기간중의 部品輸入增加의 크기 8.1배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²⁵⁾

IV. 工業構造의 變化

1953~61년간에 있어서의 주요한 經濟政策目標은 工業化를 바탕으로 한 급속한 經濟成長이 걸코 아니었다. 李承晩政權의 初年度의 성장률 15.0%에서 시작하여 1954~1958~59년사이에 연평균 8.8%란 높은 成長率을 목표한 Nathan計劃을 주로 政治的인 理由 즉 그 反計劃的인 偏見 따라서 自由企業原理에 대한 信仰에서 이를 拒否하여 水泡化시켰던 예에서도 보듯 自由經濟體制의 확립을 추구했었다. 그것은 反日과 관련된 日帝末 統制 經濟的 殘滓의 拂拭 및 反共和 관련된 體制의 對比의 強化와는 一脈相通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經濟政策目標은 國防費의 支辨을 위하여 충분한 物質的 基盤

(22) 産業銀行調査部, 『韓國의 産業』, 1973年版 (I), pp.136-139

(23) 同書, pp.235-240

(24) 同書, pp.255-262

(25) 同書, pp.389-392

을 마련한다는데 시종하였지 産業活動을 經濟成長率提高의 手段으로서 活用코자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不拘하고 <表 6>에서 보듯 1953~61년간의 國內總固定資本形成의 産業別配分을 보면 第1次産業에 10.5%, 第2次産業에 24.6% 특히 製造業에 23.0%를 배분하여 1962~71년간에 있어서의 9.4% 및 23.1% 그리고 22.2%를 각기 1.1%포인트, 1.5%포인트 및 0.8%포인트씩 上廻하고 있다. 그대신 서어비스産業에 대한 投資는 64.9%로서 1962~73년간의 67.5%보다 2.6%포인트 낮다. 1953~73년을 통하여 서어비스産業중 가장

<表 6> 産業別固定資本形成 (%)

	1953-61	1962-73
1次産業	10.5	9.4
2次産業	24.6	23.1
製造業	23.0	22.2
서어비스産業	64.9	67.5
運輸·通信	20.2	25.7
합 計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5.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運輸·通信部門에의 投資인데 1953~61년간에 있어서의 그대도 20.2%로서 製造業에 대한 투자보다 작았는데 1962~73년간에 있어서는 25.7%로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의 크기를 2.6%포인트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60年代後半 이후 直接的 生産活動의 擴大로 輸送을 중심한 社會間接資本部門에 부분적으로 隘路現象이 발생한 탓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962~73년에 있어 工業部門에 集中的인 投資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정부중심의 投資活動이 에너지 및 輸送등 社會間接資本에 集中되었다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는 정부의 國威宣揚의 誇示生産目標에 적절한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民間企業의 創意性에 의한 直接的 生産活動을 誘發할 誘因을 마련해 준 것인데 民間企業의 意慾不足이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1953~73년을 통하여 투자총액의 4분의 1미만이 제조업부문에 投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製造業은 그것이 갖는 生産力上的 優位로 인하여 <表 7>에서 보듯 1953~61년만에는 연평균 12.1%의, 1962~73년간에는 19.0%란 높은 성장율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53년에 있어서는 47.1% 대 7.2% 대 45.7%라는 後進의인 구조를 갖고 있던 産業別附加價值構成比는 1961년에는 44.1% 대 11.9% 대 44.0%로 개선되었으며 1972년에는 25.2% 대 26.2% 대 48.6%란 즉 1次産業<2次産業<3次産業이란 先進的인 構造를

〈表 7〉 産業別成長率 (%)

	1953-61	1962-73
1次産業	3.6	3.9
農 業	3.5	2.9
2次産業	11.3	18.2
工 業	12.1	19.0
서비스産業	3.8	13.7
社會間接資本	12.1	17.5
기 타	3.0	9.6
G N P	4.4	9.6

자료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 1973.

갖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産業構造는 1973년에도 22.8% 대 29.4% 대 47.8%로, 1974년에는 22.5% 대 31.5% 대 46.0%로 굳어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産業중 社會間接資本 및 建設業이 차지하던 비중도 1953년의 3.5%에서 1961년의 6.0%를 거쳐 1973년에는 13.7%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그동안 製造業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협의의 社會間接資本을 포함한 戰略部門에 集中的인 投資를 하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볼 때 에너지, 農業 및 社會間接資本을 중심한 不均衡成長戰略이라는 Wolf의 判斷은 협의의 社會間接資本 및 製造業을 중심한 不均衡成長戰略이 1962~73년간에 추구되어 왔었다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勞動人口比率은 말할 것도 없고 附加價值構成比를 기준한다고 하더라도 第1次産業의 비중은 1953~61년간에는 44.8%였고 1962~73년간에는 32.9%였으므로 投資配分比率은 相對的으로 작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製造業과 협의의 社會간접자본을 중심으로 經濟發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重化學工業의 成長率이 1953년 이래 輕工業의 성장율을 계속 上廻한 까닭에 호프만比率은 1953년의 6.67 : 1에서 1961년의 3.97 : 1을 거쳐 1972년에는 2.43 : 1로 變化하였다. 물론 〈表 10〉에서 보듯 호프만比率은 1968년에는 1.87 : 1로 커진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후 계속 작아져가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한국경제에 있어 資本財產業의 發展이 進進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아직까지도 한국경제는 産業相互간에 有機的이며 균형있는 聯關關係를 갖지 못하고 不均衡的, 無計劃的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호프만比率이 갑자기 키졌다가 다시 작아지고 하는 變則的運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1953년 이래 언제나 輕工業을 上廻하여왔던 重化學工業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1953~61년간에는 5±1.5 대 1이란 工業發展의 第1段階에

〈表 8〉 産業構造의 推移 (1953-73) 單位: %

	1차산업 (농업)		2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건설업)	
	1953	47.1	(45.6)	7.2	(6.1)	45.7
1954	48.0	(46.7)	7.6	(6.8)	44.4	(4.1)
1955	46.7	(45.5)	8.7	(7.9)	44.6	(4.2)
1956	43.8	(42.1)	10.1	(9.3)	46.1	(4.7)
1957	44.4	(42.5)	10.3	(9.3)	45.3	(5.0)
1958	44.8	(43.1)	10.6	(9.7)	44.6	(5.1)
1959	42.6	(40.9)	11.2	(10.2)	46.2	(5.8)
1960	41.3	(39.9)	12.1	(10.8)	46.6	(6.0)
1961	44.1	(42.5)	11.9	(10.6)	44.0	(6.0)
1962	40.3	(38.6)	13.3	(11.7)	46.4	(6.7)
1963	40.0	(38.3)	14.1	(12.6)	45.9	(7.2)
1964	42.6	(40.7)	13.8	(12.3)	43.6	(7.6)
1965	39.4	(37.6)	15.5	(13.9)	45.1	(8.5)
1966	38.9	(37.1)	15.9	(14.5)	45.2	(9.1)
1967	34.3	(32.4)	18.1	(16.6)	47.6	(10.0)
1968	31.1	(29.2)	20.0	(18.7)	48.9	(11.7)
1969	30.5	(28.7)	20.8	(19.7)	48.7	(13.0)
1970	23.0	(26.2)	22.8	(21.6)	49.2	(13.3)
1971	26.5	(24.5)	24.4	(23.3)	49.1	(13.0)
1972	25.2	(22.8)	26.2	(25.2)	48.6	(12.9)
1973	22.8	(18.8)	29.4	(28.4)	47.8	(13.7)

資料 한국은행, 「韓國의 국민소득」, 1973.
「조사월보」, 1975. 1

〈表 9〉 産業構造의 國別比較 (%)

	1963			1972			
	1次	2次	3次	1次	2次	3次	
I. 先進그룹	美 國	4	: 33	: 63	3	: 29	: 68
	영 國	3	: 35	: 62	3	: 31	: 66
	日 本	11	: 38	: 51	6	: 37	: 57(71)
	대 마 크	12	: 31	: 57	7	: 28	: 65(71)
II. 先發後進그룹	南 阿	12	: 38	: 50	10	: 35	: 55(71)
	南로디지어	20	: 24	: 56	16	: 30	: 54
	韓 國	40	: 14	: 46	25	: 26	: 49
III. 後進그룹	히 랍	23	: 16	: 61	16	: 20	: 64
	터 키	36	: 18	: 46	26	: 23	: 51
	태 국	36	: 16	: 48	30	: 20	: 50
	인도네시아	58	: 10	: 32	41	: 18	: 41
	요 르 단	17	: 9	: 74	16	: 11	: 73
越 南	28	: 11	: 61	31	: 7	: 62(71)	

자료 UN, Statistical Yearbook, 1973.

〈表 10〉 工業構造의 推移

單位 · 백만원 1970년不變價格

	소비재 산업부가가치	자본재 산업부가가치	호프단비율
1953	28,739	4,307	6.67 : 1
1954	31,949	5,370	5.95 : 1
1955	40,753	6,262	6.51 : 1
1956	46,435	7,579	6.13 : 1
1957	47,359	8,133	5.82 : 1
1958	52,571	9,181	5.73 : 1
1959	56,824	9,933	5.72 : 1
1960	60,778	12,639	4.81 : 1
1961	63,107	15,884	3.97 : 1
1962	63,616	21,703	2.93 : 1
1963	71,199	28,276	2.52 : 1
1964	74,477	26,752	2.78 : 1
1965	88,100	31,418	2.80 : 1
1966	100,907	38,200	2.64 : 1
1967	122,269	52,809	2.32 : 1
1968	141,075	75,577	1.87 : 1
1969	168,979	89,806	1.88 : 1
1970	200,750	97,990	2.05 : 1
1971	248,203	108,334	2.29 : 1
1972	290,697	119,822	2.43 : 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各年號
 " 「한국의 국민소득」, 1973.

있던 韓國工業은 1962년이후에는 분명히 2.5±1대 1이란 第2段階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製造業1人當附加價値의 크기의 變化를 보면 제조업전체로서의 1人當 工業額(附加價値)은 211원으로서 당시의 1인당 GNP 2,381원의 8.9%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것이 1961년에 가서는 1557원으로 1953년에 비하여 7.4배가량 커졌으며 1인당 GNP 중 차지하는 비중도 13.4%로 커졌다. 1962~73년간에 있어 1인당 工産額의 증가는 더욱 급격하여 1962년에 1932원으로 1인당 GNP의 14.5%이던 것이 1967년에는 8,096원으로 4.2배가량 키지면서 1인당 GNP의 18.8%로 커졌으며 1973년에는 38,558원으로 1962년에 비하여 거의 20배, 1953년에 비하여 183배가량 증대하면서 1인당 GNP중 차지하는 비중도 25.7%로 커졌다. 20여년에 걸친 工業化와 近代化努力의 결과 이제 한국인은 所得의 4분의1정도를 工業生産活動에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1인당 工産額의 크기가 급속히 증대되어갔다고는 하지만 <表11>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73년에 있어서의 우리의 1人當工産額은 70달러로서 1人當工産額이 가

장 큰 獨逸의 25분의 1을 약간 上廻할 뿐이며 英國의 10분의 1, 日本에 비하면 11분의 1에 불과하다. 다만 東南아시아의 여러 發展途上國에 비하면 대략 2배가량의 크기를 누리고 있는 형편이다.

〈表 11〉 1人當工産額과 國際比較

I) 韓國의 1人當 工産額推移		II) 國際比較(1972년)		
	1人當工産額(원)	國 別	1人當工産額(달러)	
1953	211	獨 逸	1680	100.0
55	604	美 國	1388	82.6
57	964	佛 蘭 西	1355	80.7
59	1,293	스 웨 덴	1293	77.0
61	1,557	캐 나 다	956	56.9
63	2,710	日 本 ¹⁾	779	46.4
65	5,079	英 國	695	41.4
67	8,096	韓 國 ²⁾	70	4.2
69	14,012	말레이지아 ¹⁾	48	2.9
71	21,524	泰 國 ¹⁾	36	2.1
73	38,558	필 리 핀 ¹⁾	33	2.0

註) 1) 1971년 2) 1973년
 자료 : U.N., Statistical Yearbook, 1973.
 한국은행, 「한국국의 국민소득」, 1973.

V. 結 論

이상의 분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다.

첫째, 1953~61년간에는 人間의 叡智에 의해 經濟發展의 方向, 특히 工業化의 類型에 영향을 주려는 努力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1962~73년간에 있어서는 祖國의 近代化란 口號아래 工業發展을 중심으로 計劃的 開發을 追求한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그러나 工業發展의 內實에 관한 한 1953~61년의 自由放任政策 1962~73년의 計劃的 開發政策사이에는 아무런 技術選擇의 相異를 볼 수 없다.

둘째, 그뿐만아니라 國民總生産 또는 他産業部門에 成長率과 對比시켜 相對적으로 고찰할 때 1962~73년간의 重化學工業成長率은 年平均値로 보아 1953~61년의 그것에 비하여 停滯하고 있다.

셋째, 1953~61년간에 있어서는 해마다 GNP의 12.4%를 投資하여 4.4%의 GNP成長率을 실현하였음에 비하여 1962~73년간에는 21.8%를 投資하여 9.6%의 GNP成長率을 실현시켰으므로 投資效率은 24.1%가량 상승된 셈이다.

네째, 그러나 工業成長率과 投資率을 비교할 때 그效率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즉 國內總投資率을 기준한다면 1962~73년간의 工業成長率은 1953~61년간의 그것의 89.3% 수준, 固定投資率을 기준한다면 79.3%수준, 工業部門에 있어서의 固定投資率을 기준한다면 82.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重化學工業化의 進展에 따라 技術的 要求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限界資本係數가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經驗없이 시작한 計劃的 開發에 따른 必然的으로 생긴 그리고 여러가지 經濟外的 要因의 作用으로 인하여 不必要하게 擴大된, 試行錯誤로 인한 資本의 浪費, 그非效率的인 利用이 ΔY_1 에 대한 ΔK_1 를 크게 하였을 것이다. (但 i 는 製造業)

〈表 12〉 投資와 成長率

	1953-61(A)	1962-73(B)	$\frac{B}{A}$
國內總投資率	12.4	21.8	1.76
固定投資率	10.1	20.0	1.98
國民貯蓄率	4.4	12.1	2.75
民間	6.9	8.7	1.26
政府	- 2.5	3.4	—
海外貯蓄率	7.9	8.8	1.11
經濟成長率	4.4	9.6	2.18
製造業成長率	12.1	19.0	1.57
鐵工業成長率	11.3	18.2	1.61
社會間接資本成長率	12.1	17.5	1.45

자료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 1973.

다섯째, 工業部門 그것도 몇개의 戰略工業에 重點的으로 投資하는 不均衡成長戰略을 추구한다고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工業別成長率 또는 產業別成長率을 볼 때 그러한 不均衡成長戰略의 자취는 뚜렷하지 않다. 〈表 4〉에서 모든 政策的 特惠의 對象이 되었던 製造業과 政策的으로 疎外된 製造業과의 成長率隔差는 결코 두드러지지 않으며 〈表12〉에서 모든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率과 그成長率은 製造業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있다.

여섯째, 1953~61년과 1962~73년간을 구별하는 특징적인 것으로는 1953~61년이 Hoffmann이 말한 工業發展의 第1段階에 속하고 있음에 반하여 1962~73년은 분명히 第2段階的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그러나 1967년 이후 政策的 力點이 주어진대로 重化學工業이 發展하였다면 늦어도 1970년부터는 Hoffmann의 第3段階에 進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1969년 이후 工業發展은 Hoffmann의 法則을 逆行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產業 상호간의 有機的인 聯關係가 없고 投資에 計劃性과 持續性이 없으며 投資率과 工業成長率 사이에

도 一義的인 관련이 적기 때문이다.

이같이 생각할 때 民間主導下에 自由放任的으로 이루어진 1953~61년간의 工業發展과 政府主導下에 計劃原理에 의해 추진된 1962~73년간의 工業發展은 工業成長率 一般이 높아졌다는 相異이외에는 工業化의 類型, 工業化의 相對的 進展度 또는 工業生産의 效率이란 보다 본질적인 重要性을 갖는 여러가지 면에서 뚜렷한 相異點을 갖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計的, 組織적으로 內資動員의 極大化를 추구하는 한편 有償의 外資導入 政策을 성공시킨 결과 1953~61년에 비하여 GNP에 대한 비율을 기준할 때 1.76배이상의 投資資源을 處分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결과로서 1.57배가량 工業成長率을 높일 수 있었기에, 그리고 投資效率을 낮춰가면서까지도 誘示生産的 플랜드建設을 하였기에 1962~73년간의 工業化와 經濟發展이 눈부시게 보인 뿐 신세에 있어서는 經濟原理로부터 더큰 逸脫을 1962~73년간의 計劃的 開發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